

# 雜劇「서유기」 중 唐僧 인물형상 연구\*

金光永\*\*

## <目 次>

1. 서론
2. 본론
  - 1) 잡극「서유기」 이전 당승의 인물형상
    - (1) 史傳과 地誌 중의 당승
    - (2) 송대 이후 문학 작품 중의 당승
  - 2) 잡극「서유기」 중 당승의 인물형상
    - (1) 영웅적 高僧
    - (2) 일반적 凡僧
3. 결론

## 1. 서론

잡극「서유기」는 元末 明初의 蒙古族 극작가 楊景賢(본명은 楊訥이고, 景賢은 그의 字임. 생졸년대는 불명확함)의 작품으로 역사적 실존인물인 당나라의 玄奘(602~664)이 印度로 西天取經하는 고사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원잡극의 작가 중 몽고족인 양경현은 그의 姊兄인 楊鎮撫를 따라 錢塘(지금의 杭州)에 이주하여 살았기 때문에 그를 楊氏 姓으로 불렀다. 그는 『續錄鬼簿』의 저자인 곡학자 賈仲明과 50여 년을 교왕하였고, '비파를 잘 타고 희롱거리를 좋아했다(善琵琶, 好戲謔)'고 하며,<sup>1)</sup> 모두 18종의 잡극을 지었으나 지금 전해지는 것은 잡극「서유기」

\* 본 연구는 2018년도 광주대학교 대학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광주대학교 외국어학부 교수

1) 鐘嗣成, 賈仲明著, 『新校錄鬼簿正續編』, 165쪽, 巴蜀書社, 1996.

와 신선도화극인 「劉行首」 두 편뿐이다.

몽고족 극작가라는 독특함을 지닌 양경현의 잡극 「서유기」는 전체 원잡극 중에서도 독특한 모습을 보여준다. 곧 잡극 「서유기」는 1本 4折 1楔子라는 잡극의 일반적 체제를 크게 확대하여 6本 24齣의 장편 희곡으로 창작되었다. 물론 양경현 이전에도 王實甫가 5本 20折의 「西廂記」를 지었으나, 양경현의 잡극 「서유기」는 왕실보의 「서상기」를 뛰어넘는 거대한 장편 희곡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잡극 「서유기」는 전체 6본 중 제1본에서 殷氏가 主唱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각 본은 모두 남녀 각색이 나누어 主唱하며, 또한 일률적으로 인물의 성명을 사용하면서 '正末' '正旦' 등의 각색명을 사용하지 않는 독특함을 보여주고 있다.

서천취경의 西遊故事라는 내용상에서 볼 때 잡극 「서유기」는 서천취경을 제재로 하는 전체 문학 작품 중에서 연결고리나 교량의 역할을 하고 있다. 곧 당나라 시기 실존인물인 현장이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성취한 서천취경의 서유고사는 이후 민간에 전해지면서 점점 傳奇化되고 神話化되어 여러 가지 문학 형태로 나타나다가 마침내 명말에 소설 「서유기」가 탄생하였다. 이 전체 과정 중에 잡극 「서유기」는 송나라 시기 說話四家의 하나인 說經의 전문 설화인이 공연할 때의 대본인 「大唐三藏取經詩話」(이하 「詩話」로 간칭함)가 소설 「서유기」로 집대성될 때 중요한 연결고리나 교량의 역할을 해내고 있는 것이다.

한편 잡극 「서유기」는 전체 서유고사의 발전에서 볼 때 一師三徒라는 取經團을 처음으로 확실하게 형성하여 소설 「서유기」 취경단의 모태가 되었다는 점에서 일정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잡극 중의 핵심 성원인 三藏法師 당승의 인물형상은 잡극 「서유기」 이전의 「시화」나 이후의 소설 「서유기」와는 분명하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곧 잡극 「서유기」 중의 당승은 영웅적 고승의 형상과 함께 이외는 상반되는 일반적 凡僧의 형상을 함께 보여주는데, 이런 점에서 당승은 잡극 「서유기」의 전체적 성격을 보여주는 핵심적 인물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잡극 「서유기」에 나타난 당승의 인물형상을 통하여 잡극 「서유기」 자체의 희곡적 의미를 파악하고, 아울러 잡극 「서유기」 중 이러한 당승의 인물형상이 전체 서유고사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살피고자 하며, 또한 잡

극 「서유기」에는 당승의 인물형상이 왜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잡극 「서유기」 중 당승의 인물형상을 다룬 선행 연구는 별로 없는 편이다. 우선 국내에서 잡극 「서유기」를 연구한 논문은 없으며, 다만 서정희가 소설 「서유기」의 당삼장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sup>2)</sup> 또한 중국에서는 馬冀가 잡극 「서유기」 중의 여러 인물형상을 논하면서 그 중에서 당승의 인물형상을 비교적 간략히 논하였다.<sup>3)</sup> 본고에서는 이들의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하여 잡극 「서유기」 중 당승의 인물형상의 의미와 그 배경을 살피고자 한다.

## 2. 본론

### 1) 잡극 「서유기」 이전 당승의 인물형상

당나라 시기 실존인물인 玄奘의 파란만장한 실제 서천취경의 서유고사가 양현경의 잡극 「서유기」로 발전하기까지는 거의 700여 년이 경과하였고, 다시 이후 명대 말엽 吳承恩에 의해 소설 「서유기」로 탄생되는 데는 거의 200여 년이 필요하였다. 이렇듯 서유고사는 장시간에 걸쳐 여러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는 먼저 역사서와 傳記 및 『大唐西域記』라는 地誌 중 당승의 모습을 살펴보고, 아울러 송대 이후 문학에 나타난 당승의 인물형상을 살피고자 한다.

#### (1) 史傳과 地誌 중의 당승

당나라 시기 실존인물인 삼장법사 玄奘에 대해 서술한 것은 많으나 이들 중 가장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기록은 아무래도 正史의 기록이라고 여겨진다. 이러한 현장에 대한 역사적 사실로서의 기록은 『舊唐書』와 『新唐書』에 보이고, 아울러 당나라 시기의 學僧인 道宣(596~667)이 편찬한 『續高僧傳』에도 현장에 대한 기

2) 서정희, 「「서유기」의 당삼장 연구」, 『중어중문학』 38집, 2006, 6.

3) 馬冀, 「論雜劇「西遊記」的人物形象」, 『內蒙古社會科學』 第22卷, 6期, 2001.

록이 보인다. 여기에서는 그 중 『구당서』에 실린 현장에 관한 기록을 살펴기로 한다.

승려 현장은 姓이 陳氏이고 洛州(지금의 洛陽) 偃師人이다. 大業 말년(617년) 출가하여 광범위하게 經論을 섭렵하였다. 번역된 經書에 오류가 많아, 그리하여 西域에 가서 다른 板本들을 폭넓게 구하여 참고하며 검증하겠다고 일찍이 말하였다. 貞觀 초년(627년) 그는 상인을 따라 서역으로 나갔다. 현장은 말재주와 박학함에 있어서 출중하여, 이르는 곳에서는 반드시 그들을 위하여 論難된 점을 설명해주어, 오랑캐들은 遠近을 막론하고 모두 그를 존경하고 탄복하였다. 그는 서역에서 17년을 지내면서, 100여 국가를 다녔는데, 모두 그들 국가의 언어를 알았으며, 그 山川 풍속과 土地 物産을 채집하여 『대당서역기』 12권을 편찬하였다. 貞觀 19년(645년) 그는 京師로 돌아왔으며, 太宗이 그를 보고서 매우 기뻐하며 그와 담론하였다.<sup>4)</sup>

위의 인용문에 의하면, 속세에서 현장의 姓氏는 陳氏이고, 낙양 출신이며, 隋나라 말기 혼란스러운 시기에 출가하여 불교의 많은 經論을 섭렵하였다. 위의 인용문에는 또 승려로서의 현장이 서역으로 取經하게 된 동기를 보여주고 있으니, 곧 현장은 당시의 불교 經書에 번역상의 오류가 많음을 느껴, 직접 서역으로 가서 다른 판본들을 구하여 올바르게 검증하기 위하여 출발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627년 상인들의 무리를 따라 서역으로 출발하였고, 이후 17년 동안 100여 국가를 직접 다닌 후에 『대당서역기』를 편찬하였으며, 645년 귀국하여 당 태종 李世民的 커다란 환대를 받았다고 한다.

여기에서 말한 『대당서역기』는 현장이 17년 동안 서역 138개 국가의 지리와 풍속 등을 직접 보거나 간접적으로 들은 것을 책으로 찬술하도록 당 태종이 명령하자, 현장이 646년 제자인 辯機에게 구술한 것을 번기가 정리한 地誌이다. 이렇기 때문에 『대당서역기』에는 求法旅行家로서 현장의 모습보다는 주로 서역의 지

4) 僧玄奘, 姓陳氏, 洛州偃師人. 大業末出家, 博涉經論. 嘗謂翻譯者多有訛謬, 故就西域, 廣求異本以參驗之. 貞觀初, 隨商人往游西域. 玄奘既辯博出群, 所在必爲講釋論難, 蕃人遠近咸尊伏之. 在西域十七年, 經百餘國, 悉解其國之語, 仍采其山川謠俗, 土地所有, 撰《西域記》十二卷. 貞觀十九年, 歸至京師. 太宗見之, 大悅, 與之談論. 『舊唐書·方伎傳』, 漢語大詞典出版社, 4391쪽, 2004.

리 소개지로서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大唐大慈恩寺三藏法師傳』(이후 『法師傳』으로 간칭)은 현장의 生平事跡 등의 史料가 최초로 상세하게 기술된 것으로, 현장의 제자인 慧立과 彦棕이 688년 『대당서역기』를 근거로 하여 찬술한 것이다. 다만 『법사전』에서 현장의 제자들은 종교적 열광으로 자신들의 스승인 현장을 칭송하기 위하여 현장의 神奇함을 과장적으로 묘사하였으며, 몇몇 신화 전설을 더하여 불교적 색채를 지니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법사전』에는 현장의 서천취경이 더욱 신비스럽게 묘사되었으며, 이 때문에 『법사전』은 당시에 성행했던 唐 傳記와 비슷하게 되었다.<sup>5)</sup> 일례로 『법사전』에 의하면, 현장은 儒學을 좋아하는 학자의 모습인 陳慧의 넷째 아들로서, '법사가 막 태어났을 때 어머니는 법사가 흰 옷을 입고 서방으로 가는 꿈을 꾸었다고 한다.(法師初生也, 母夢法師著白衣西去)<sup>6)</sup>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법사전』 중의 당승은 기본적으로 『구당서』나 『대당서역기』와 같이 실제적 모습에 의거하고 있지만, 실제적 모습에 일정한 상상력이 더해진 신비한 聖僧의 인물형상도 일정 부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대당서역기』와 마찬가지로 진정한 서유고사의 작품으로 여겨지지 못하지만, 서유고사의 발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 (2) 송대 이후 문학 작품 중의 당승

송대 이후 중국문학은 민간문학으로 점점 중심축이 이동하여, 서천취경의 서유고사도 주로 민간문학에서 활발하게 나타난다. 먼저 송나라 시기 유행했던 說話四家 중 佛經과 관련된 내용을 공연하던 說經의 대본인 「大唐三藏取經詩話」는 서유고사의 신천지를 열었으며, 서유고사 문학의 원천이다. 곧 「시화」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서유고사의 인물과 사건 묘사에 있어서 神魔的 색채가 나타나고, 取經團의 주요 인물이 간략하게나마 형성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시화」는 서유고사의 진정한 출발점이다. 이전에 살펴보았던 「법사전」이 현장의 일대기인 점과는 달리,

5) 涂秀虹著, 『元明小說戲曲關係研究』, 144쪽, 上海三聯書店, 2004.

6) 『大唐大慈恩寺三藏法師傳』 제1권, 김영률 번역, 동국역경원, 1997.

「시화」 중에는 처음으로 白衣秀才로서의 猴行者와 深沙神의 형상이 출현하여 취경단의 대원으로 들어왔는데, 이들은 이후에 손오공과 沙和尚으로 바뀐다. 「시화」는 또한 그 성격상 寺院 俗講의 底本이기 때문에 불교 사상을 선양하는 데 목적을 두며, 작품 중에서는 세속의 위험과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어떻게 妖怪와 魔鬼를 항복시키는 등의 고사를 통하여, 佛法이 無邊함을 선양하였다. 다만 이때 당승이 하는 작용은 경건한 선교사와 같은 것으로, 「시화」 중 그의 인물형상은 평범한 凡僧으로서, 그 자신에게는 어떠한 神話 색채나 신마색채의 後光이 없다. 곧 그는 一心으로 수행하는 경건한 佛徒이고 충직한 불교선양자이다.<sup>7)</sup>

금·원대에 이르러 서유고사는 또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먼저 서유고사는 희곡 무대에 등장하였다. 그리하여 金代 院本인 무명씨의 「唐三藏」과 元雜劇인 吳昌齡의 「唐三藏西天取經」이 나타났으나, 안타깝게도 모두 실전되어 전하지 않으며, 제목으로 추측건대 「서유기」의 당승 고사와 비슷하리라고 여겨진다.<sup>8)</sup> 또 徐渭의 『南詞敘錄』에 실린 宋·元 戲文의 이름 중에 「陳光蕊江流和尚」이란 희문이 있으나, 실전되어 전하지 않는다. 다만 제목으로 추측하면, 현장의 부친인 陳光蕊가 惡漢에게 살해되자, 어머니에 의해 부득이하게 강물에 버려진 현장이 나중에 승려가 되어 서천취경하는 고사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현장의 서유고사는 송·원 시기에 이미 상당히 흥성하였으며, 작품 중의 당승인 현장은 강물에 버려진(江流) 새로운 인물형상으로 등장하였으리라고 여겨진다.

원대에 있어서 서유고사는 희곡뿐만 아니라 산문체의 민간문학인 平話로도 나타났다. 바로 「西遊記平話」가 그것이다. 평화는 설화인에 의하여 인물과 줄거리가 풍부해졌으며, 종교고사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민간고사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서유기평화」는 실전되어 전하지 않으며, 다만 『永樂大全』 13139卷 중에 1200 여 자의 단편적 기록이 남아있고, 또 조선 시대의 중국어 교과서인 『朴通事諺解』에도 「唐三藏西遊記」의 殘本 이야기가 여덟 차례 인용되고 있을 뿐이다.

7) 田華, 『論「西遊記」雜劇在西遊題材作品中的地位』, 12卷, 內蒙古民族大學 碩士學位, 2011.

8) 王振星, 「唐僧江流兒身世的原型與流變」, 『南通大學學報』 23卷, 2期, 2007.

## 2) 잡극 「서유기」 중 당승의 인물형상

서유고사는 당나라 시기 실존인물에서 종교적 색채를 강하게 지닌 전기문학적 성격의 「법사전」으로 나타났다가, 이후 송나라 시기 민간문학인 「시화」로 비로소 초보적이거나 문학적 형식이 완성되었으며, 이후 금·원대에 이르러 다시 희곡과 평화의 형식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전체 서유고사의 발전에서 볼 때 소설 「서유기」를 만약 완성품이라고 본다면, 「시화」에서 출발하여 잡극 「서유기」에 이르러 서야 비로소 고사 줄거리나 인물형상 및 취경단의 조직에 있어서 거의 완벽한 서유고사가 형성되어, 명말 오승은의 소설 「서유기」의 탄생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작품으로 출현하였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잡극 「서유기」는 서유고사를 제재로 하는 작품 중 「시화」에서 소설 「서유기」로 발전해가는 과정 중의 중요한 연결고리나 교량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잡극 「서유기」 중의 핵심인물인 당승은 극 중에서 극의 전반부와 이후 전개된 부분에서 매우 다른 인물형상으로 나타난다. 곧 당승은 극의 제1本과 제2本 초반부에서는 신화적이고 영웅적인 高僧의 양상으로 모습으로 나타났다가, 이후에는 해학적이고 평범한 승려로 출현한다. 그러면 먼저 당승의 영웅적 형상을 살펴보자.

### (1) 영웅적 高僧

잡극 「서유기」의 작자 양경현은 당승의 영웅적 형상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전체 6本 중 제1本과 제2本의 첫 부분을 전면적으로 할애했으며,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당승의 특이한 출생 내력과 서천취경을 위한 조정의 성대한 송별식을 묘사하였다. 그러면 먼저 잡극 「서유기」에 보인 당승의 신화적이고 영웅적인 출생내력을 원문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龍王 등장): 밤새 觀音菩薩님의 명령이다: “毘盧尊者께서 금일 재난이 있으니, 夜叉에게 분부하여 강가의 水神들이 단단히 지키도록 하라.”  
(퇴장)

(부인이 애를 안고 등장): 도적놈에게 남편이 죽고 나서, 저는 애를 낳

아 오늘 한 달이 되었네요. 도적놈이 애를 강에 버리라고 강요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저까지 죽인다고 하네요. 제가 죽는다면 누가 제 남편을 위해 복수해줄까요? 하는 수 없이 따라야지요. 애야! 나도 어쩔 수 없구나!(노래한다).....

【醉春風】 애끓는 심정으로 백원짜리 紙錢을 태우고/ 이별의 한으로 술 석 잔을 따르는데/ 도도한 강물에 물보라 일어나네/ 陳光蕊여! 당신의 魂靈은 있는가? 있는가? 저에게 큰 화장상자 있으니, 아이를 그 속에 넣어야지. 두 세 개 나무 조각을 댓개비로 묶으면 떠내려갈 수 있겠지.

화장상자에 넣어서/ 물가에 버리네/ 陳光蕊여! 그 강에서 기다리세요. ....

(漁夫가 상자를 들고 등장하여 인사를 드린다): 오늘 제가 고기를 잡는데, 백사장에서 불꽃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가보니, 도리어 漆匣이였습니다. 안에는 어린아이가 하나 있어, 어르신들께 보여드렸으니, 설마 妖精이나 怪物이 아니겠지요?

(丹霞禪師 등장): 가져와 보아하니 훌륭한 어린아이구나. 섬뜩한 빛이 번쩍이고 특이한 향기가 내뿜도다. 안에는 금비녀 두 개와 血書 한 통이 있는데, 이렇게 써있네: “殷氏의 혈서입니다. 이 애의 부친은 海州 弘農人이며, 姓은 陳이고 이름은 萼입니다. 관직을 洪州 知府를 제수받아, 가족을 거느리고 부임하는 길에, 돈을 주고 배를 빌려 劉洪이란 자를 강의 뱃사공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그놈이 남편을 강물에 밀어 빠뜨리고는 자신이 洪州 知府라고 사칭하였습니다. 저에게는 남편의 유복자가 있어서,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여 애가 한 달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도적놈은 애를 강에 버리라고 저를 꾀박합니다. 그리하여 금비녀 두 개와 혈서 한 통을 넣으니, 그대께서 불쌍히 여기시어 구해주세요. 이 애는 貞觀3년 10월 15일 子時 生입니다. 달리 이름이 없고 江流라고 부릅니다.”<sup>9)</sup>

9) (龍王上, 云)夜來觀音法旨云:毗盧伽尊者今日有難, 分付巡海夜叉, 沿江水神, 緊緊的防護者. (下)(夫人抱孩兒上, 云)自從被賊徒壞了男兒, 我得了个孩兒, 今朝满月, 賊漢逼臨我拋在江裏. 待不依來, 和我也要殺壞. 我死了呵, 誰與我男兒報讐? 則索依着他. 兒呵, 也是我出于無奈. (唱)..... 【醉春風】燒一陌斷腸錢, 酌三杯離恨酒. 滔滔雪浪大江中, 陳光蕊呵, 你魂靈兒敢有、有! 我有一個大梳匣, 將孩兒安在裏面, 將兩三根木頭兒, 將蔑子縛着, 可以浮將去. 匣子裏安藏, 水波邊拋棄, 陳光蕊呵, 你在那浪花中等候. .... (漁人持匣上, 做相見科)今早小人打魚, 見沙灘焰起, 去看時, 却是個漆匣兒, 內有一個小孩兒, 與長老看, 莫不是妖精怪物麼? (丹霞云)將來看, 好個孩兒. 寒光閃爍, 異香馥人. 內有金釵二股, 血書一封, 上寫道:“殷氏血書. 此子之父, 乃海州弘農人也, 姓陳名萼, 字光蕊. 官拜洪州知府. 携家之任, 買舟得江上劉洪者, 將夫推墮水中, 冒名作洪州知府. 有夫遺腹之子, 就任所生. 得满月, 賊人逼迫, 投之于江. 金釵二股, 血書一封. 仁者憐而救之. 此子貞觀三年十月十五日子時建生. 別無名字, 喚作江流.” 隋樹森編, 『元曲選外編』第2冊, 637-639쪽, 中華書局, 1987.

위의 인용문은 잡극 『서유기』 중 제2齣 ‘逼母棄兒’과 제3齣 ‘江流認親’에서 극 중의 주인공 당승이 ‘江流’라는 이름으로 출생하게 되는 내력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위에 의하면, 당승은 우선 前生의 신분이 毘盧伽尊者라고 하는데, 비로가존자는 불교에서 수행과 공덕이 매우 뛰어난 부처의 제자이다. 잡극 『서유기』의 작자는 당승을 신화화시키고 영웅화시키기 위하여, 먼저 당승의 전생에서의 신분을 극도로 높였다. 또한 위의 인용문에는 불교의 중요한 보살인 관음보살과 佛法의 수호신인 夜叉 및 水中的 龍王神이 神佛의 형상으로 등장하는데, 모두 극 중에서 당승의 서천취경을 돕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비록 신불이지만 모두 세속화되고 인격화된 모습으로 등장하여 당승을 돕고 있다.

위에서 당승의 어머니인 부인은 남편의 유복자로서 한 달된 아들을 안고서 자신이 부득이하게 강물에 버려야 하는 상황을 처참하게 노래하면서, 당승이 본시 강물에 버려진 아이라는 뜻의 ‘江流’라는 이름을 지니게 되었던 출생 내력을 밝히고 있다. 곧 그녀는 벼슬을 제수받은 남편과 함께 부임지로 가는 도중, 강의 뱃사공인 劉洪이 남편을 물에 빠뜨려 남편을 잃게 되었으며, 이후 부득이하게 남편의 복수를 위하여 류홍과 살아야 했고, 또 남편의 유복자인 ‘江流’를 漆匣으로 된 화장상자에 넣어 강요에 의하여 강물에 버려야 하는 자신의 처절한 상황을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그녀는 아이를 넣은 칠갑상자 속에 아이의 출생 내력을 血書로 써 넣었는데, 어부가 이 칠갑상자를 발견하여 金山寺의 丹霞禪師에게 넘김으로써, 江流故事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위에서 보인 당승의 신화화되고 영웅적인 인물형상은 강류고사가 그 핵심이다. 그리고 이러한 강류고사는 당승의 인물형상을 신화화하고 영웅화시키기 위하여 잡극 『서유기』의 작자가 일부러 채용한 것인데, 이러한 강류고사의 수법은 세계 여러 국가에도 보이니, 『聖經』에서 모세가 나일강에 버려지는 이야기는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면 일종의 始祖神話와 비슷한 양상의 이러한 강류고사는 중국에서 언제 처음으로 생겼을까? 일반적으로 강류고사의 원형으로는 B.C.1600년 경 湯 임금을 보좌하여 夏나라를 멸망시키고 商나라를 건립하는 데 큰 공을 세운 정치가로 유명한 伊尹의 특이한 출생신화를 들고 있다.<sup>10)</sup> 그러면 『呂氏春秋』에 보인

이윤의 특이한 출생신화를 살펴보자.

有莘氏의 여자가 뽕을 따다가 (줄기 속이) 비어있는 뽕나무 가운데서 갓난아이 하나를 얻어 군주에게 바쳤다. 그 군주는 주방장에게 기르도록 하고는 그렇게 된 이유를 살피게 하였더니 (조사하여) 말했다. “그 어머니는 伊水에서 살았습니다. 임신을 했는데 꿈에 신이 나타나 알리기를 ‘절구에서 물이 나오면 동쪽으로 달아나라. (그리고) 돌아보지 말아라’ 하였답니다. 다음날 절구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보고는 이웃에 알린 뒤 동쪽으로 10리를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았더니 자신의 동네는 전부 물에 잠겼는데 자신의 몸도 변해서 속이 빈 뽕나무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름을 지어 伊尹이라고 하였다. 이것이 이윤이 속이 빈 뽕나무에서 태어나게 된 연고이다.<sup>11)</sup>

위의 인용문에 의하면, 商나라의 賢臣인 이윤은 강물에 떠내려간 속이 텅빈 뽕나무에서 태어나는 특이한 출생신화를 지녔다. 有莘氏는 夏·商 시기 동방의 중요한 씨족 부락의 사람으로, 하나라 말기 商 탕왕의 왕비가 되었으며, 이때 이윤은 유신씨의 媵臣<sup>12)</sup>으로 술과 도마를 등에 지고 따라가서 요리사로서 湯王을 즐겁게 해주었다. 요리사로서 성공한 이후 이윤은 탕왕을 접견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탕왕은 이윤이 훌륭한 정치적 식견을 지니고 있음을 발견하고 노예 신분이던 그에게 파격적으로 재상을 맡기자, 이윤은 탕왕과 힘을 합쳐 포악한 桀을 제거하여 하나라를 멸망시켰다. 이렇듯 이윤이 미천한 노예 신분에서 재상이라는 최고의 신분에게까지 이르자, 후세에는 위의 인용문과 같이 그를 신화화하는 강류고사가 형성되었다. 그런데 위의 강류고사에서 이윤이 강물에 떠내려가는 뽕나무 속에 있으면서도 살아남았던 것은, 그의 어머니가 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속이 텅빈 뽕나무로 변신하였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볼 때 인간이 속이 텅빈 뽕나무로 변신하

10) 王振星, 「唐僧江流兒身世的原型與流變」, 『南通大學學報』 23卷, 2期, 2007.

11) 有莘氏女子採桑, 得嬰兒于空桑之中, 獻之其君. 其君令嬀人養之. 察其所以然, 曰: “其母居伊水之上, 孕夢有神告之曰: ‘白出水而東走, 毋顧’ 明日, 視白出水, 告其鄰, 東走十里, 而顧其邑盡爲水, 身因化爲空桑” 故命之曰伊尹. 此伊尹生空桑之故也. 『呂氏春秋譯註·本味』, 378쪽, 북경대학출판사, 2000.

12) 嬰신은 귀족 집안의 딸이 결혼 때 데려가는 奴僕.

는 것은 물론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렇게 강류고사에서 인간이 속이 텅빈 뽕나무로 변신하는 것은 인간의 이상과 염원을 담은 신화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속이 텅빈 뽕나무에서 태어난 이운은 이미 평범한 아이가 아니고 신비화되고 신화화된 아이이며, 인간의 심령 깊은 곳 무의식 속에 잠재해있는 일종의 영웅숭배 사상의 일면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상 시기 이운에서 시작된 강류고사는 이후 끊임없이 나타났으니, 앞에서 언급했던 徐渭의 『南詞敘錄』에 실린 宋·元 戲文 중의 「陳光蕊江流和尚」이란 희문은 비록 제목만 전하고 있지만, 제목만 보아서도 송원 시기에 이미 강류고사가 매우 흥성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강류고사는 잡극 「서유기」에 이르러서는 다시 서천취경의 서유고사와 결합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신화적이고 영웅적인 당승의 인물형상을 자연스럽게 형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잡극 「서유기」 중 강류고사로부터 형성된 당승의 영웅적 인물형상은 서천취경을 위하여 인도로 떠나는 당승의 서유고사에서도 나타난다. 극 중에서 당승은 '江流'에서 성장하여 18세 청년이 되어, 金山寺의 丹霞禪師로부터 자신의 출생 내력을 전해듣고, 자신의 親母를 찾아가 만나며, 이후 단하선사의 도움으로 자신의 가정을 파괴한 劉洪에게 철저한 복수를 한다. 그리고 복수를 마친 당승은 서천취경의 장도에 나서는데, 극 중 당나라 시기 조정의 유명한 백관들이 모두 나와 그에게 송별식을 해주는 장면은 당승의 영웅적 기개와 장엄한 풍격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그러면 극 중의 원문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虞世南 등장): ..... 저는 우세남입니다. 觀音佛의 명령을 받들어 玄奘을 조정에 천거하여 제가 그를 모시고 천자를 뵈었지요. 京師에 큰 가뭄이 들어 祭壇을 만들어 기우제를 지냈지요. 현장께서 잠시 靜坐를 하니 큰 비가 삼일 동안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천자께서는 金色 袈裟와 九環 錫杖<sup>13)</sup>

13) 승려들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로 보통 머리 부분에 여섯 개의 고리가 달려 있는데, 특별히 아홉 개의 고리가 달린 지팡이를 하사했다. 이 고리는 석장이 흔들릴 때마다 고리에서 소리가 나도록 하기 위하여 단 것이며, 길을 갈 때 이 소리를 듣고 기어 다니는 벌레들이 풀러 가도록 하여 살생을 막는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을 하사하셨습니다. …… 오늘은 임금님의 뜻을 받들어 百官有司들이 모두 霸橋<sup>14)</sup>에 가서 천막을 설치하여 연회를 베풀고 여러 社火<sup>15)</sup>를 동원하여 삼장법사께서 西行하시는 것을 환송해야죠.

(秦叔寶 등장): …… 저는 진숙보입니다.

(房玄齡 등장): …… 저는 방현령입니다. ……

(당승 등장): …… 천자께서 金色 袈裟와 九環 錫杖을 하사하시고 삼장 법사에 封하여 주시어, 저로 하여금 西天取經하도록 하시니, 제 생각건대 제 목숨은 부처님과 하늘이 보우해 주실 겁니다. ……오늘 임금님께 작별 인사를 드리고 登程에 나서야겠습니다. ……

(尉遲公 등장): …… 오늘 聖旨를 받들어 百官을 이끌고 한 번 가야지요. 보세요. 승려와 비구니, 출가한 사람과 세속의 사람들, 百官과 父老들, 그리고 잡다한 社火가 모두 모였네요. ……

(당승 등장): 여러 백관들이여, 저의 한 말씀 들어주세요. 신하로서 마땅히 충성을 다하고, 자식으로서 효도를 다하여, 忠과 孝 두 가지를 온전히 하면, 나머지는 보답할 것이 없지요.<sup>16)</sup>

위의 인용문은 제2本 제5척 ‘詔餞西行’에 나오는 부분으로, 당시의 유명한 수많은 백관들이 임금의 명령을 받들어 많은 오락 공연활동을 동원하여 현장의 서천취경을 위하여 성대하고 장엄하게 송별식을 거행하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데, 마치 영웅의 登程을 위한 엄숙하고 장중한 송별식과 같다. 위의 극 중에 등장한 우세남, 진숙보, 방현령, 울지경덕 등은 모두 당나라의 대표적인 개국공신들인데, 이들이 모두 참여하는 환송식은 거국적인 것으로 평범한 환송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성대하고 웅장하다. 또 위에서 극 중 주인공인 당승은 천자로부터 金色 袈裟와 九環 錫杖을 하사받았는데, 이것은 당승이 천자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

14) 서안 근처 灞水(파수) 위에 있는 다리로서 환송객을 위해 주로 여기에서 송별식을 벌였다.

15) 민속 오락 공연 활동단.

16) (虞世南上, 云) ……小官虞世南. 奉觀音佛法旨, 薦陳玄奘于朝, 小官引見天子. 京師大旱, 結壇場祈雨, 玄奘打坐片時, 大雨三日. 天子賜金襴袈裟, 九環錫杖, ……今日奉聖旨, 着百官有司都至霸橋, 設祖帳排筵會, 諸般社火, 送三藏西行. (秦叔寶上, 云) ……某秦叔寶是也. (房玄齡上, 云) ……某房玄齡是也.) ……(唐僧云) ……賜金襴袈裟, 九環錫杖, 封三藏法師, 着往西天取經. 我想來, 小僧性命, 也是佛天相保. ……今日辭了天子, 便索登程去也 ……(尉遲恭上, 云) ……今日奉聖旨, 率領百官前往, 須索要走一遭. 爾看僧尼道俗, 百官父老, 諸雜社火都到. ……(唐僧云) 衆官, 聽小僧一句言語: 爲臣盡忠, 爲子盡孝. 忠孝兩全, 餘無所報. 隋樹森編, 『元曲選外編』第2冊, 646-648쪽, 中華書局, 1987.

을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들로 보면, 위의 송별식에 나타난 당승의 인물형상은 영웅적 기개와 장중한 풍격을 지닌 高僧의 형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일반적이고 평범한 승려로서는 불가능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위의 인용문 중 당승이 백관들을 상대로 한 송별사는 조금 특이하다. 당승은 위에서와 같이 비록 불교의 승려 신분이지만, 忠孝를 강조하는 색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이것은 중국의 불교가 인도에서 수입된 이래 시대가 흐를수록 점점 세속화되어 유교와 불교 및 도교가 함께 결합되는 소위 三教合一의 영향이라고 여겨진다. 그리하여 극 중에서 당승은 경건한 불교의 승려이지만, 한편으로는 위에서와 같이 유교적 晝生의 형상이 함께 결합되어 나타난 것이다.

그러면 잡극 「서유기」에 나타난 영웅적 고승으로서의 인물형상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먼저 잡극 「서유기」라는 작품에서 볼 때, 당승의 영웅적 인물형상은 주로 강류고사에서 연원하였는데, 이러한 영웅적 인물형상은 伊尹과 같은 중국의 고대신화와 민간전설, 아울러 당·송 소설 및 송·원 회곡 등의 내용에 서 천취경의 서유고사가 융합되어 이루어진 결과라는 성격을 지닌다. 곧 잡극 「서유기」는 강류고사와 서유고사를 처음으로 문학적으로 결합시킨 작품으로서 일정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점에서 잡극 「서유기」중 당승의 영웅적 인물형상은 신화적 색채를 위주로 하여, 이전의 여러 문학양식을 계승하고 집대성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시화」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서유고사가 소설 「서유기」로 발전해가는 서유고사 제재의 전체적 발전 경로에서 볼 때, 잡극 「서유기」중의 당승의 영웅적 인물형상은 연결고리나 교량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당승의 신화적 강류고사는 「시화」에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잡극 「서유기」에 비로소 나타났으며, 이후 소설 「서유기」는 이러한 당승의 강류고사를 기본적으로 계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소설 「서유기」에서는 이러한 당승의 신화적 강류고사가 24句의 詩 형식으로 간략하게 묘사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점에서 당승의 강류고사는 「시화」나 소설 「서유기」와 비교할 때 잡극 「서유기」에 중점적으로 묘사되고 있어서, 잡극 「서유기」의 총체적 성격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잡극 「서유기」에 보인 당승의 영웅적 고승의 인물형상을 살펴보았다. 당승의 영웅적 인물형상은 주로 始祖신화적 색채를 강하게 지닌 강류고사에서 기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강류고사는 夏·商 시기 노예 신분에서 재상의 신분에게 오른 伊尹의 강류고사를 그 원형으로 하고 있으며, 강류고사의 이면에는 인간의 심령 깊은 곳에 무의식적으로 내재하는 영웅숭배의 심리를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이러한 당승의 영웅적 인물형상은 당나라의 개국공신들이 거국적으로 참여하여 당승의 서천취경을 축하하는 장엄하고 성대한 송별식에서도 그 일면을 볼 수 있다.

## (2) 일반적 凡僧

잡극 「서유기」의 작자 양경현은 극의 초반부에서는 앞에서와 같이 강류고사라는 출생고사를 통하여 당승을 신화화하고 영웅화하였지만, 그 이후에는 도리어 당승을 凡夫化하고 세속화하여 전혀 다른 극 중 희극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곧 극 중의 당승은 해학화되고 조롱당하는 형상으로 등장하여, 영웅적인 모습과는 이울 배반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원문을 인용하여 극 중 당승의 인물형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자.

(老張이 등장): ..... 저는 대대로 長安城 밖에 거주하는 성실한 농민입니다. 오늘 듣자하니, 장안 성 안에서 國師인 唐三藏께서 西天取經하러 가시는 것을 환송한다고 합니다. 저희 마을의 건장한 王二와 胖姑兒가 모두 갔습니다. .... 그들이 돌아오면, 저에게 이야기해 주도록 해야지요. ....

(老張): 胖姑兒! 당신이 세심하지요. 말해주세요. (胖姑兒 노래한다)

【一縞兒麻】 胖姑兒가 유난히 세심하지는 않아요/ 관리들이 떼지어 큰 절구공이를 둘러싸고 있었지요/ 절구공이에는 하늘에서 내준 눈과 눈썹이 달렸어요/ 제가 보기에는 표주박이고 호롱박이네요/ 그 사람 정말 기괴하게 생겼어요/ 무슨 놈의 唐僧, 唐僧이에요. 다행히 어르신과 안가길 다행이지요. 헛수고 했을 뻔했으니까요. 정말 별볼일 없는 것이었어요/ 괜히 옆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네요/17)

17) (老張上, 云) ..... 老張祖在長安城外住, 生是個老實的傍城莊家. 今日聽得城裏送國師唐三藏西天取經去, 我莊上莊王二、胖姑兒都看去了, 等他們來家, 教他敷演與我聽, ..... (張云)胖姑

위의 인용문은 제2本の 제6齣 ‘村姑演說’로서, 성대하고 장엄한 환승식을 시골 村婦인 胖姑兒의 시각을 통해서 해학화시키고 조롱하는 부분이다. 극 중에서는 장안성 밖에 거주하는 농민인 老張에게 시골 村婦인 반고아가 당승의 서천취경을 위한 환승식을 직접 본 결과를 노래를 통하여 설명해주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그런데 극 중에서 唱者인 반고이는 당승의 형상을 매우 해학적으로 묘사하여 웃음을 짓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곧 위의 인용문에서, 잡극 『서유기』의 작자는 고의로 喜劇性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당승의 형상이 매우 기괴하게 생겼다고 말하면서, 승려인 당승의 얼굴을 ‘절구공이’ ‘표주박’ ‘호룽박’에 비유하며 조롱한다.

그런데 이러한 희극적 수법은 「牡丹亭·學堂」과 「長生殿·彈詞」에도 똑같이 보이는 것으로, 元曲 作家 睢景臣의 套曲 作品인 「高祖還鄉」<sup>18)</sup>의 표현수법과 사 상경향을 차용하여 표현한 것이다.<sup>19)</sup> 「高祖還鄉」에서 漢高祖 劉邦이 해학적으로 조롱되고 풍자되었듯이, 당승의 서천취경을 위한 성대하고 장엄한 환승식에서 당승은 위의 인용문에서와 같이 평범한 촌부의 입을 통하여 도리어 조롱되고 풍자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조롱과 풍자는 강류고사에서 형성되었던 당승의 영웅적 권위와 풍격에도 심각한 손상을 가하여, 당승을 凡夫化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렇듯 잡극 『서유기』의 작자는 당승의 형상을 신화화되고 영웅적인 모습으로 계속 유지하지 않고, 극 중에서 도리어 범부화하고 해학화하는 희극성과 풍자성을 결합하여 다원적인 당승의 인물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극 중 당승의 凡僧으로서의 인물형상은 그의 구체적인 행위나 말을 통해서도 표현된다. 잡극 『서유기』는 제3本에 이르러 孫悟空인 孫行者가 등장하는데, 이때부터 극의 실제적인 중심인물은 손행자로 대체된다. 그러면 영웅적이지 못하고 도리어 일반적인 범승의 형상으로 나타난 당승의 인물형상을 원문을 중심으로 살펴

兒，則有你心精細，你說者。(姑唱) 【一縷兒麻】不是胖姑兒偏精細，官人每簇捧着個大樞椎。樞椎上天生得有眼共眉，我則道瓠子頭葫蘆對。這個人也索是蹺蹊，甚麼唐僧，唐僧，早是不和爷爷去看哩，枉了這遭。恰便似不敢道的東西，枉惹得傍人笑耻。隋樹森編，『元曲選外編』第2冊，648쪽，中華書局，1987.

18) 한 고조 劉邦의 내력을 잘 아는 고향 농민이 유방의 추악한 면모를 조롱한 套曲으로, 해학성과 풍자성이 매우 강렬한 작품이다.

19) 葛星煜 主編，『元曲感賞辭典』，1082쪽，上海辭書出版社，1990.

보자.

(당승 일행이 등장): 행자야! 우리들이 너와 함께 며칠간 걸었더니 몸이 피곤하구나. 빨리 숙소를 찾아 식사를 하고 가자구나. (紅孩兒가 등장하며 우는 동작을 한다)

(당승): 훌륭하구나! 훌륭하구나! 깊은 산 속 누구 집 어린아이가 길을 잃었구나. 조금 지나 어두워지면 豺狼과 毒蟲이 이 애의 목숨을 해치지 않겠는가? 출가인이 죽을 것을 보고 구해주지 않는다면 마땅히 戒行을 파괴하는 것이리라. 행자야! 내 대신에 업어라! 앞에 人家가 있으니, 내력을 알아보고 그 애 집에 보내주면 좋은 일이지.

(행자가 등장): 사부님! 산의 숲 속에는 妖怪가 매우 많으니 쓸데없이 참견하지 마세요!

(당승): 너 이놈의 원숭이! 내 말을 또 안 들어. 반드시 그 애를 업어라!

(행자): 사부님! 먼저 가십시오. (업혀지지 않는 동작을 한다): 내 일찍이 花果山에 놀러 있다가도 몸을 솟구쳐 뛰어 나왔는데, 크고 작은 요술 방망이로도 업을 수 없으니, 분명히 요괴구나. 너 내 戒刀맛을 봐서, 계곡으로 떨어지도록 해주마. (계곡으로 떨어뜨리는 동작을 한다)

(沙和尚이 황급히 등장): 師兄! 큰일 났어요! 그 어린아이에게 사부님이 잡혀갔어요. 그 애가 무슨 요괴인지 누가 알았겠어요?

(행자): 火龍아, 우리 셋이 관음불께 가자.(퇴장)

(관음불이 등장): 老僧의 눈에 당승이 재난을 당하고 손오공이 오는 것이 보이구나. 이 동굴의 妖魔는 무슨 괴물인지, 노승은 본 모습을 보지 못했도다. 손오공이 오면, 같이 世尊佛께 여쭙러 가야겠도다.(퇴장) .....

(세존불): 그 애가 요괴인지는 모르지만, 그 애 엄마는 내 밑에서 天神으로 있도다. 佛法에 아직 귀의하지 않았으며, 鬼子母라고 한다. 그녀의 어린아이는 愛奴兒라고 부르는데, 내가 이미 揭帝<sup>20)</sup>를 파견하여 잡아다가 깊은 바위나 큰 언못 가운데 두도록 시켰으니, 그 애 엄마가 곧 올 것이다. 揭帝가 그 애를 행복시키지 못할까 두려우니, 老僧의 鉢盂를 가지고 오나라.

(四揭帝가 鉢盂를 들고 등장. 세존불): 손오공아! 너는 본 자리로 돌아가거라. 너의 사부는 이미 나와서 거기에 있느니라. <sup>21)</sup>

20) 佛法을 수호하는 護法神의 하나.

21) (唐僧一行人上, 云)行者, 我每與爾行了幾日, 身子困倦, 早些尋個宿頭, 安排些齋吃, 却行. (紅孩兒上, 哭科)(唐僧云)善哉! 善哉! 深山中誰家個小孩兒, 迷踪失路? 少刻晚來, 豺狼毒

위의 인용문은 잡극 「서유기」의 제3본 제12척 '鬼母皈依'의 시작 부분으로, 극 중에서 손오공이 본격적으로 요괴를 제압해가는 시련 과정 중의 하나인데, 당승은 여기에서 자신의 판단 착오로 요괴에게 납치당하는 무능한 범승의 면모를 보여준다. 곧 위에서 깊은 산속을 가고 있던 당승은 홀로 길을 잃고 울고 있는 어린아이인 紅孩兒를 만나자, 승냥이나 이리 및 독충이 그를 해칠까 걱정되어, 순행자에게 업어서 집으로 데려주라고 명령한다. 물론 어린아이는 요괴인 홍해아가 변신한 것으로, 순행자는 홍해아가 요괴일 것이라고 이미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순행자가 당승의 명령에 따르지 않자, 당승은 순행자에게 '원승이라고 욕하면서 홍해이를 업으라고 재차 명령하였다. 그러나 순행자가 요괴인 홍해이를 아무리 업으려고 해도 업혀지지 않았으며, 그 사이 당승은 홍해이에 의해 납치되는 재난을 당하였다. 그리고 위의 극 중에서 당승의 납치라는 재난은 순행자의 능력으로는 처리되지 못하고, 강력한 조력자인 神佛의 힘에 의지하여 해결되었다. 특히 홍해이는 신통력이 강대한 요괴이어서, 당승의 납치는 관음불로는 해결되지 못하고, 불교의 최고 부처인 세존불의 힘에 의해 당승이 구출되었다.

이후 극 중의 鬼子母는 자기 아들인 홍해이를 구하려고 군대를 이끌고 나왔으나, 불교의 호법신인 那吒에게 제압당하고, 결국에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 불교에 귀의한다. 특히 세존불이 귀자모를 불교로 귀의시키기 위하여, 귀자모의 아들을 세존불의 발우 안에 가둔 고사는 불교에서 매우 유명한 고사이며, 이후 소설 「서유기」에도 보인다. 위의 인용문에서 보인 것처럼, 당승은 극 중에서 무능하고 판단력이 떨어진 범승의 형상으로 출현하였는데, 그러면 다른 장면에 나타난 당승의

虫, 不壞了這孩兒性命? 出家人見死不救. 當破戒行. 行者, 與我馱着, 前面有人家, 教根問, 送還他家請賞, 也是好事. (行者云)師父, 山林中妖怪極多, 不要多管. (唐僧云)爾這個胡孫, 又不聽我說. 定要你背他. (行者云)師父先行. (做背不起科)(云)我曾壓在花果山, 聳身一跳, 尚出來了. 棒槌大的小的, 背他不起, 這必是妖怪. 教爾嘗我一戒刀, 就砍下涧裏去; (做丟下涧科, 沙和尚慌上, 云)師兄禍事, 吃那小孩兒拿將師父去了. 知他是何妖怪?(行者云)火龍, 俺三人見觀音佛去來. (下)(觀音上, 云)老僧目中, 見唐僧有難. 孫悟空來也. 這一洞妖魔, 是何怪物? 老僧正不見本來面目, 待孫悟空來, 同往問世尊佛去. (下)……(佛云)不知此非妖怪. 這婦人我收在座下, 作諸天的. 緣法未到, 謂之鬼子母, 他的小孩兒, 喚做愛奴兒. 我已差揭帝去拿他, 在个幽岩大澤之中, 即日便到. 恐揭帝降不下他, 將老僧鉢盂去, 蓋將來. (四揭帝打鉢盂上, 佛云)孫悟空, 爾回原處去. 爾師父已出在那裏了也. 隋樹森編, 『元曲選外編』第2冊, 662쪽, 中華書局, 1987.

범승적 형상을 살펴보자.

(女王이 당승을 끌어당긴다): 이 正殿에서는 이야기 할 곳이 못되니, 우리 둘이 後殿으로 갑시다.

(당승): 손오공아! 나를 구해줘! (퇴장)

(손오공): 저도 어찌할 수 없어요. ....

(여왕이 당승을 끌어당기며): 당승! 저랑 당신이랑 부부가 됩시다! 당신은 오늘 國王이 되는 것이 어떤지요? .....(여왕이 당승을 잡고 옆치락뒤치락 한다)

(당승): 누가 나 좀 구해줘!

(韋馱尊天<sup>22)</sup>이 등장): 저는 위태존천입니다. 관음보살의 명령을 받들어 당승을 구하러 가야지요. 쌍년이 어찌 감히 내 사부님의 몸을 망가뜨리려고 하다니!

(여왕): 너는 어떤 놈인데 내 침실로 들어와? .....

(위태존천): 만일 사부님을 안 놓아주면 몽둥이로 박살낼 거야.(여왕이 손을 놓아준다).....

(당승): 행자야! 오늘 위태존천이 구해주지 않았다면, 거의 내 몸이 망가졌을 거야.<sup>23)</sup>

위의 인용문은 잡극 「서유기」 제5본 제17척 ‘女王逼配’ 부분으로, 당승을 위시한 취경단이 여인국에 들렀을 때 당승이 맞이했던 시련을 해학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당승은 위에서 여자들만이 사는 女人國의 여왕이 부부가 되자며 유혹하고 욕정을 내보일 때, 자신의 의지나 능력으로는 해결하지 못하고, 호법신인 위태존천에 의해 구출된다. 그리고 이러한 장면은 극 중의 우스꽝스러운 희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난처한 상황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당승의 유약함과 무능함을 드러낸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위의 인용문 중의 당승은 신화적이고 영웅적인 인물형

22) 불교의 호법신 중의 하나.

23) (女王做扯唐僧科)這正殿上不是說話的去處, 俺兩個後殿裏去來. (唐僧云)孫悟空救我. (下)(行者云)我自也顧不得. .... (女王扯唐僧上, 云)唐僧, 我和爾成其夫婦, 爾則今日就做國王, 如何? ..... (女王捉番唐僧科)(唐僧云)誰救貧僧也. (韋馱尊天上, 云)某韋馱尊天是也. 奉觀音法旨, 去救唐僧走一遭. 潑賤人, 怎敢毀吾師法體?(女王云)爾是何人, 直走到臥房裏來? ..... (韋云)若不送師父出來, 一杵打爾做泥塵. (女王做放手科).....(唐僧云)行者, 貧僧若非尊神護持, 幾毀法體. 隋樹森編, 『元曲選外編』第2冊, 678-679쪽, 中華書局, 1987.

상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당승의 해학적이고 평범한 인물형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해학적이고 평범한 당승의 인물형상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먼저 잡극 「서유기」라는 작품 자체에서 볼 때, 당승의 이러한 해학적 인물형상은 극 중 무대공연의 희극적 연극성을 제고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극 중에서 신화적이고 영웅적인 모습을 바탕으로 해학적이고 평범한 모습이 결합된 당승의 인물형상이 확실히 희극적 무대효과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서천취경의 서유고사라는 전체적인 노정에서 볼 때, 잡극 「서유기」중 당승의 해학적이고 풍자적인 인물형상은 소설 「서유기」의 해학적이고 풍자적인 예술 풍격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일례로 소설 「서유기」에 나타난 神佛들에 대한 풍자는 기본적으로 잡극 「서유기」를 계승하고 있기 때문이다.<sup>24)</sup>

그러면 잡극 「서유기」의 작자는 왜 신화적이고 영웅적인 면과 해학적이고 평범한 당승의 이율배반적인 인물형상을 한 작품 안에 결합시켰을까? 여기에는 크게 보아 두 가지 요인이 작용했다고 여겨진다. 첫째, 원말 명초에 쓰여진 잡극 「서유기」는 당시 종교적 추세의 영향을 받았는데, 당시의 불교는 이미 세속화의 길을 오랫동안 걸어, 불교와 유교 및 도교가 결합되는 三教合一이 대세가 되었다. 예를 들면 잡극 「서유기」의 작자인 양경현과 같은 시기인 원말 명초의 유학자 출신으로 나중에 불교에 귀의한 劉謙은 그의 『三教平心論』에서 儒佛道 三教가 이치상 처음부터 같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는 三教鼎分說을 주장하였다.<sup>25)</sup> 이러한 점은 원잡극 중의 불교극에도 잘 나타나는데, 원잡극 중의 불교극에는 삼교합일의 세속적 승려의 형상이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그리하여 원잡극 중의 불교극에는 당시의 불교와 승려를 풍자하고 조롱하는 해학적 양상이 자주 보인다.<sup>26)</sup> 그리하여 이러한 경향 아래에서 잡극 「서유기」중 당승의 인물형상도 이러한 영향을 받았으리라고 여겨진다.

24) 최한용, 「「서유기」에 나타난 神佛들에 대한 비판」, 『중국어문학논집』 제58호, 2009.

25) 임형석, 「劉謙의 三教平心論에 대하여 — 유교의 排佛論에 대한 불교도의 반응」, 『한국철학논집』 제20집, 74쪽

26) 羅永忠, 「試論元雜劇佛道劇中對佛敎道敎的批判」, 藝術百家, 2003년 제3기.

둘째로는, 희곡이 근본적으로 무대상연을 전제로 한다는 점과 연관된다고 생각된다. 잡극 「서유기」는 희곡 역사상 처음으로 서천취경의 서유고사를 무대 위에서 공연한 작품인데, 잡극 「서유기」의 작자인 양경현은 특히 작품의 해학적 무대효과를 중시하여, 당승의 인물형상에 희극적이고 풍자적인 인물형상을 결합했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後錄鬼簿』에 보이듯이, 거기에는 희롱거리기를 좋아한(好戲謔) 양경현 자신의 성격도 영향을 끼쳤었다고 생각된다.

### 3. 결론

원말 명초 몽고족 극작가 양경현의 잡극 「서유기」는 실존인물인 당나라 玄奘의 서천취경을 제재로 하는 서유고사의 작품이다. 잡극 「서유기」는 잡극의 일반적 체제를 크게 확대하여 6本 24齣라는 장편의 희곡으로 무대에 공연된 작품이며, 명대에 있어서도 기존의 잡극과는 달리 '正末' '正旦' 등의 각색명을 사용하지 않고 노래하는 인물의 성명을 사용하는 독특함을 보여주고 있다.

잡극 「서유기」 중의 당승은 玄奘이라는 이름으로 史傳과 地誌 중에 나타났는데, 『구당서』와 『대당서역기』에는 그가 불경 번역의 오류를 고치고자 상인들을 따라 서역으로 출발하여 17년 동안 138개 국가를 다녔던 역사적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또 이후 『법사전』에서 현장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스승을 칭송하기 위해, 현장의 神奇함을 과장적으로 묘사했으며, 몇몇 신화전설을 더하여 불교적 색채를 지니게 만들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당승의 서천취경의 서유고사가 진정한 문학 작품으로 등장한 것은 민간문학이 흥성한 송대 이후였다. 곧 「대당삼장취경시화」는 서유고사 문학의 원천으로서, 인물과 사건 묘사에 있어서 神魔의 색채가 나타나고, 取經團의 주요 인물이 간략하게나마 형성되었다. 다만 「시화」는 그 성격상 寺院 俗講의 底本이기 때문에 불교 사상을 선양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으며, 극 중 당승이 하는 작용은 경건한 선교사와 같은 평범한 역할이었다. 金·元代에서 서유고사는 희곡무대에 등장하였으나 양경현의 잡극 「서유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실전되었다. 그러나 「陳光蕊江流和尚」이라는 작품의 제목만으로도 당시에 서유고사가 흥성함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원대에 있어서는 산문체의 민간문학인 「西遊記平話」도 나타났으나 전하지 않고 『永樂大全』이나 조선의 중국어 교과서인 『朴通事諺解』에 잔본만 전해진다.

잡극 「서유기」 중 당승의 인물형상은 특이하게 신화적이고 영웅적인 모습과 해학적이고 평범한 모습이 함께 결합되어 나타난다. 먼저 극 중에서는 시작하자마자 당승의 출생담으로서 始祖神話의 색채가 강한 강류고사가 1본과 2본에 걸쳐 전면적으로 묘사된다. 그리고 이러한 강류고사는 당승 영웅형상의 핵심으로, 인간의 심령 깊은 곳에 무의식적으로 내재하는 영웅숭배의 심리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 잡극 「서유기」의 작자인 양현경은 강류고사를 서유고사와 결합시켜 당승의 신화적이고 영웅적인 형상을 창조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강류고사는 중국에 오랫동안 전해져 온 것으로, 그 원형은 商나라 시기 湯王의 賢臣인 伊尹의 강류고사에서 비롯되었다. 이윤은 본시 노예 출신이지만 후에 재상의 지위에 오르자, 영웅이 된 이윤을 신격화하여 신화가 형성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극 중에서 작자는 당승을 신격화시키기 위해 곧 이전까지 전해오던 강류고사를 사용하였다. 곧 당승의 신화적이고 영웅적인 형상은 역사적 실존인물의 신기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고대 신화와 민간전설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형성된 것이다. 그리하여 극 중에서는 당승의 서천취경을 환송하기 위하여 조정의 개국공신들이 참가한 성대하고 장엄한 환송식이 거행되는데, 이 또한 영웅의 출정식과 같은 분위기를 주는 것으로, 당승의 영웅적 형상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잡극 「서유기」 중 당승의 신화적이고 영웅적인 인물형상은 작품 자체에 일정한 의미를 부여해 주고 있다. 곧 이제까지 전해져 오던 고대신화와 민간전설 등을 종합한 강류고사가 잡극 「서유기」에 이르러 처음으로 서유고사와 결합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서천취경을 제재로 하는 서유고사라는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 당승의 신화적이고 영웅적인 인물형상은 소설 「서유기」 중 당승의 인물형상에도 일정한 영향을 끼쳤다. 그것은 당승의 강류고사가 소설 「서유기」에도 계승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며, 다만 편폭이 크게 줄어들어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극 중에는 전반부에서 보인 당승의 신화적이고 영웅적인 모습과는 달리 해학적이고 평범한 승려로서의 모습 또한 나타난다. 이 중 장안성 밖에 거주하는 일반 村婦의 눈으로 본 당승의 형상은 극 중에서 저절로 웃음을 자아내는 것으로, 강렬한 해학성과 풍자성을 보여준다. 극 중에서 촌부인 胖姑兒는 당승이 매우 기괴하게 생겼다고 비웃으면서, 당승의 얼굴이 '절구공이' '표주박' '호롱박'과 같다고 노래하여 희극적 해학성을 조성하였다. 뿐만 아니라 극 중에서 당승은 鬼子母의 아들로써 요괴인 紅孩兒를 길을 잃은 아이로 잘못 판단하여, 손행자에게 업어서 집에 데려다주도록 시키는데, 이때 당승은 홍해이에게 납치되는 재난을 당한다. 그리고 극 중 당승의 이러한 시련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강력한 조력자인 관음보살이나 世尊佛에 의하여 해결되어, 잡극 「서유기」의 작자는 당승을 무능하고 판단력이 떨어진 평범한 인물로 묘사한다. 또한 극 중 당승의 취경단이 여자들만 사는 여인국에 들렀을 때도 당승의 해학적이고 평범한 인물형상은 분명하게 드러난다. 곧 여인국 여왕이 당승에게 성적인 유혹과 욕정을 나타낼 때, 당승은 자신의 의지나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손행자 등에게 자신을 구해주라고 소리치는데, 이러한 당승의 인물형상은 강한 희극성을 보여준다.

한편 극 중 당승의 해학적이고 평범한 인물형상은 작품의 희극적 무대효과를 제고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 서천취경의 서유고사 전체에서 볼 때, 극 중 당승의 해학적이고 풍자적인 모습은 소설 「서유기」의 예술 풍격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리고 잡극 「서유기」에서 이렇듯 당승 형상이 신화적이고 영웅적인 모습과 해학적이고 평범한 모습으로 결합되어 표현된 것은 일정한 원인을 지녔다. 곧 원말 명초 당시에 성행한 三教合一의 사상적 경향을 당시의 불교극이 보편적으로 받았듯이, 잡극 「서유기」도 三教合一의 영향을 크게 받아 당승의 형상이 다원화되었고, 아울러 『續錄鬼簿』에 보이듯이 희극적 무대효과를 중시하는 작자의 경향도 당승의 인물형상에 일정한 영향을 끼쳤다고 여겨진다.

〈參考文獻〉

- 최한용, 「『서유기』에 나타난 神佛들에 대한 비판」, 『중국어문학논집』 제58호, 2009.
- 임형석, 「劉謐의 三教平心論에 대하여 — 유교의 排佛論에 대한 불교도의 반응」, 『한국철학논집』 제20집.
- 서정희, 「『서유기』의 당삼장 연구」, 『중어중문학』 38집, 2006, 6.
- 田華, 「論『西遊記』雜劇在西遊題材作品中的地位」, 內蒙古民族大學 碩士學位, 2011.
- 馬冀, 「論雜劇『西遊記』的人物形象」, 『內蒙古社會科學』 第22卷, 6期, 2001.
- 王振星, 「唐僧江流兒身世的原型與流變」, 『南通大學學報』 23卷, 2期, 2007.
- 鄭傳寅, 「論元雜劇中的佛教劇」, 『武漢大學學報』 제66권 제1기, 2013년.
- 涂秀虹著, 『元明小說戲曲關係研究』, 上海三聯書店, 2004.
- 鐘嗣成, 賈仲明著, 『新校錄鬼簿正續編』, 巴蜀書社, 1996.
- 毛小雨, 「元雜劇中佛教戲研究」, 『戲曲研究』 第31輯, 文化藝術出版社, 1989.
- 楊毅, 『宗教與戲劇的文化交融』, 福建師範大學博士學位論文, 2005.
- 朱莎, 「論元雜劇中佛教世俗化現象及原因」, 『襄攀學院學報』 제33권 4기, 2012년.
- 嚴蘭紳 主編, 『元曲論集』, 河北出版社, 1993.
- 隋樹森編, 『元曲選外編』 第2冊, 中華書局, 1987.

〈Abstract〉

The Study on 「Journey to the West」 Drama of Yuan Zaju  
— About Image of Character of Tang Seng XuanZang

Kim, Kwang-Young

XuanZang who was monk of Tang dynasty was very famous person. In 7<sup>th</sup> century XuanZang went to the west to bring Buddihist scripture to the china. He went around over one hundred countries for seventeen years. His miraculous story carried down for long time. Yuan Zaju 「Journey to the West」 was created at these

foundation.

Tang Seng is hero in Yuan Zaju 「Journey to the West」. In this drama Tang Seng play double roles. One is mythical and heroic character. The other is humouros and common character. In this drama birth of Tang Seng is very mythical. Tang Seng in one month is swept away in river. He is saved by another monk. Because of this the image of Tang Seng is filled with myth and hero.

On the other hand in this drama Tang Seng has humorous and common character. In this drama one common country woman sneer Tang Seng. In this point Tang Seng is target of ridicule and satire. Also Tang Seng way to the west is kidnaped by monster. In this point Tang Seng is an incompetent man.

In this drama Tang Seng play double roles. Double roles conflict each other. what element produced these opposed two characters? This is antinomy. Unity of Three Religion is significant element. At that time Unity of Three Religion is general tendency. Yuan Zaju 「Journey to the West」 is influenced by the Unity of Three Religion. Addedly the writer of Yuan Zaju 「Journey to the West」 concerned in stage effect.

Key words: 「Journey to the West」 drama , Unity of Three Religion, XuanZang, mythical and heroic character, humorous and common character

이 논문은 2018년 1월 11일에 접수되어 2018년 2월 15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8년 2월 15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